

우리 가족 이야기

위탁 가족 및 아이들의 수기 모음



위탁부모와 아동의 수기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동지찾기 프로그램

목차:

- 02 '엄마'라고 부를래요: 위탁부모 준희씨
- 04 축복의 3개월: 위탁부모 제인씨
- 05 진경, 진희를 기억하며: 위탁부모 순영씨
- 06 3남매의 할아버지: 위탁부모 진혁씨
- 07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 아이: 데이빗
- 08 처음으로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된 아이:수빈이
(수기에 나온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수기집은 위탁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위탁가정 아이들 이야기는 처음 시작과 끝이 모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위탁가정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눈물이 나고, 그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끝내 들리면 또 눈물이 나고 만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품어준 부모님과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들로 인해 더 사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엄마'라고 부를래요: 위탁부모

준희씨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딸아이 16살 때 우리도 위탁가정이 되는걸 원해서 딸 아이와 함께 한인교회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가서 듣고 결심했고 한국어 교육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교육후에 가정에서 하는 교육, 서류로 하는 교육 등등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때로는 이런 것 까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럴때 남편이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며 나를 격려해주었다. 딸도 내게 힘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받은 그룹중에 제일 먼저 라이선스를 뗀고 아이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번이나 온다고 하고 무산되었을때는 우리 마음이 참으로 좋지 않았다. 한번은 어린아이였기에 준비해야하는 것도 많았고 마음도 무거웠지만 열심히 아기침대부터 장난감, 젖병까지 여러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아기는 오지 않았고 우리 마음은 이길이 아닌가 후회하기도 했었다.

기다림은 계속 되었고 어느날 8살 남자 아이가 한국집을 찾고 있다고 했고 KFAM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과 기대를 하며 이 아이를 맞아드렸고 아이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약간 어둡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첫날이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대답이 없기에 내가 Mrs 누구누구, 아니면 이모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라고 떠보곤 내가 그건 좀 그렇다 하면서 어떻게 좋을지 물어보았고 결론은 이모였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아이는 이후로 이모라고 한번도 부르지 않아서 다시 이모라고 부르는거 싫으냐고 물어보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고 싶어 했더니 들어가는 소리로 엄마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리 약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딸아이와 같이 그제 좋겠다면서 맞장구를 쳐 주었더니 아이가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는 엄마라고 잘불렀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더 당황할 정도였다.(내색하진 않았지만). 딸 아이가 대학에 가기전까지 참 많은 도움을 주었고 누나를 많이 좋아했다. 아이는 누나가 대학 기숙사로 가는걸 몹시 서운해 했고 보고 싶어했다.

나는 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는 스타일의 엄마는 아니었다. 내 딸아이를 키울때는 꽤나 엄격하게 키웠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럴수 없었고 그러 필요도 없는 아이였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고 싶어 했더니 들어가는 소리로 '엄마'라고 짧게 대답했다.

착하고 말을 잘 들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내 아이 키울때와 똑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키웠다. 더 잘해준것도 없었고, 그저 우린 가족이었다. 아빠, 엄마, 누나, 아빠로 호칭이 바뀌었고 우린 더욱 가족으로 살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딸 아이와 남편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탁가정일을 대했기 때문인 것 같다.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건 무척힘이 들거라고 생각한다. 딸아이는 어릴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많이 돌보아 보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다룰줄 안다.

어느날의 일이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안듣고 떠들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아이를 앉혀놓고 딸아이와 내가 물어보았다. 오늘 혹시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이는 아무일도 없었다고 시치미를 뚝때면서 답했다.

내가 물어봐도 다시 없었다고 대답했다. 딸 아이가 순간 아이의 거짓말에 뭔가를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얘기하겠다면 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도록 유도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왜우냐고 했더니 대답도 없이 울기만 했다.

우는것으로 자기의 이 문제를 모면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다. 아이에게 니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떠들은거, 선생님이 말씀 안들은거 그럴수도 있다.

누나도 어릴 때 다 해봤다. 그런 안그러면 되는거니까 큰 문제도 아니고 누나는 더 떠들은적도 있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는건 절대 안되고 나쁜거다. 왜 분명히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니 입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계속 없었다고 거짓말한거는 나쁜거다. 그게 더 잘못된거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었고 그 아이는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했다.

그러곤 아이에게 오라고 하더니 딸 아이는 아이를 꼬옥 안아주었다. 우린 널 혼내려고 한게 아니고 그저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던 건데 니가 계속해서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혼을 낸거고 거짓말을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걸 잘 말해주었다. 그 이후론 아이는 거짓말 한적이 없었다. 그날밤에는 내가 자기전에 낮에 있었던 일을 잘 말해주면 안아주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다시 한번 풀어주었다. 그리고 매일밤 하던대로 기도를 해주고 굿나잇 뽀뽀를 해주고 재웠다.

우리는 이렇게 내 아이 키울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키웠다.

매일밤, 우리부부는 교대로 아이가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굿나잇 인사와 I Love You를 꼭했다. 이 아이는 I love you 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이 말이 어색하고 쑥스러운듯 보였고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I Love You 에 대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I Love You more 라고 까지 대답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I Love You more 라고 까지 대답하기에 이르렀다.

축복의 3개월: 위탁부모 제인씨

오늘은 친부모에게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인계한 날이므로, 민호(가명)와 민정(가명)이 친남매가 지난 3개월간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줄 일지와 사진첩을 준비해 놓았다. 우리가족이 지난 3개월간 민호 민정이 남매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오빠 민호]

민호는 도착했을 때 이미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일단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했고,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했고, 또 커서 게임을 설계하는 코더가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는 민호에게 뒷마당 수영장장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고, 중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입수하여 민호가 직접 분리하고 또 남편의 도움으로 다시 조립을 해봤고, 온라인 코딩 수업에도 등록시켰다.

민호가 우리와 함께 한 첫번째 일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후 마당에 새로운 온실을 짓고, 포고 스틱을 타고, 매실을 따서 맛보고, 롤러브레이드 타며, 치킨 타키토스를 직접 만들고, 마블런(Marble run) 만들기 등을 함께 했다.

우리가족이 민호와 함께 지내는 동안 꼭 가르쳤으면 하는 2가지 목표가 있었다. 1) 남을 돌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괜찮다 2)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우리 또한 함께 보낸 지난 3개월의 시간을 축복이라 생각한다.

[민호동생 민정이]

민호의 동생 민정이는 알파벳 "F" 다음 순서의 알파벳을 암기할 수 없었고, 숫자를 셀 수도 없었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어떤 글자, 숫자도 식별할 수 없었다. 또한 목을 가다듬는 (Clear throat) 틱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민정리와 ABC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집에서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정리는 이제 알파벳 전체를 혼자서 암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물건을 세는 것을 반복하여 마침내 도움없이 15까지 셀 수 있게되었고, 우리가 도움을 주면 20까지도 셀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민정리의 소지품에 라벨을 붙여, 다른 이름들과 여럿 나란히 있을 때도 본인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어 달 동안 지내면서 틱장애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처음 우리집에 왔을때 약간 과체중이었던 민정리는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운동(바이킹, 걷기, 수영, 술래잡기)을 하고 식이조절을 한 결과 마지막으로 체중을 잴 때 7파운드 이상 빠진 49파운드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함께 있는 동안 민정리는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즐겼다. 전에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정리는 야외 부엌 장난감들과 인형들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곤충들을 모으고, 닭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다. 민정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수영이었고 처음부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우리부부의 작은 희망은 두 아이 모두가 우리와 함께 지냈던 여러 일들을(처음으로 인앤아웃을 가고, 생애 첫 텐트 캠핑, 야외에서 영화를 보기, 게임, 영화, 물놀이 등)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해주는 것이다.

민호 민정리의 친부모님 역시 저희에게 항상 친절했고, 우리 또한 함께 보낸 지난 3개월의 시간을 축복이라 생각한다.

진경, 진희를 기억하며: 위탁부 모 순영씨

의사가 저에게 다시 임신을 할 수 없을거라 말했을 때, 망연자실했다. 딸 제시카는 외동딸이었고,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었다. 저는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또 제시카가 자매를 가질 수 있도록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 진경(가명)과 진희(가명)자매의 위탁을 요청 받았을 때, 나는 십대인 진경이를 말는데 다소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인가정상담사와 DCFS(아동보호국)는 저에게 이 자매가 함께 지낼곳이 너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저도 이 둘을 갈라놓기 마음아파서 둘 다 데려오는데 동의했다.

우리가족은 아기인 진희를 공주처럼 대했다. 처음에는 진희가 많이 울었다. 친부모와 함께 살았던 이전 집은 아동 방임과 가정 폭력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또한 그 이유로 친부모와 분리되어 위탁시스템에 오게 되었다. 저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은 1주일 후, 진희는 점점 우리 가족에 적응해나갔다. 제시카 또한 그의 위탁동생을 많이 사랑했다. 장난감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진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종일 일하던 남편 또한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진희를 안아주고 보살폈다.

반면 진경이는 전형적인 10대인 게이머 소녀였다. 1년전 미국으로 막 이주한 상태여서 영어가 서툴렀고, 더군다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새 학교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10대인 진경이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진경이는 나와 많이 부딪혔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애썼다.

진경이는 내가 진경이의 친동생인 진희만 예뻐하고 신경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희가 받는 관심에 대해 질투를 많이 하였다. 진경이는 종종 자기가 진희 음식을 먹겠다고 투정 부렸고, 어느 순간 나와 의 언쟁중에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나는 이 십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많이 서툴렀 더욱이 10대인 언니가 어린 친동생 아기를 왜 질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진경이는 진희의 이유식을 먹고 싶어하는것일까?!

나는 재빨리 KFAM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의 좌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도 진경이를 위해서 진경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어요! 그것도 매일 아침! 진경이는 식성이 까다로워서 항상 음식을 따로 챙겼어요. 그런 진경이가 왜 아기 음식을 질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KFAM 사회복지사는 즉시 진경이를 심리상담사와 연결시켜주었고 상담을 받으며 진경이는 서서히 기분과 행동이 좋아졌고, 몇 달 동안 잘 적응한 후에 진경이는 학교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진경과 진희의 친부모였다. 진경 진희자매는 친부모와의 감독방문을 일주일에 2~3번씩 해야 했으며, 이는 실제로 나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더구나 친모는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진 것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나를 향해 거친 말을 해서 불편함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상처받는 말들을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진경과 진희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어야 했던게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애썼다.

3남매의 할아버지: 위탁부 모 진혁씨

위탁 부모가 되기 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였다. 1.5세인 나는 아내와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낙이었다.

65세에 은퇴하고 자녀들을 대학에 다 보낸 후에 우리 부부는 두 마리의 개와 두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KFAM의 위탁가정 기사를 보고, "내가 고양이와 개를 기를 수 있다면, 왜 아이들은 안 되는 걸까? 이 애들은 내 도움이 더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결국 3명의 형제자매를 첫 위탁아동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부부는 원래 한 아이만 맡고 싶었지만, 이전에 위탁 가정에서 이 세 남매가 떨어져 지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이들이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결국 다 받기로 결심했다.

11살과 6살짜리 쌍둥이, 이 세 아이를 한꺼번에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막내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다가 울면서 일어나 다른 아이들도 잠에서 깨곤 했다. 이 아이가 좀 덜 불안하게 나는 내 침대를 거실로 옮겨 언제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막내를 밤에 직접 재워주고 또 심리상담도 받게 하면서 마침내 악몽 없이 잠을 잘 잘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아이들에게 보통의 가정에서 갖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에서 십대 진경이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주고 싶었다. 진경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어했을 때, 자전거를 사주었다. 진경이가 컴퓨터 과학에 관심을 보이자 저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찾아 매주 토요일 컴퓨터 수업에 데려다 주었다.

어느 특별한 휴일에 가족들은 외식을 하러 고급 레스토랑에 나가기로 계획했는데 진경이는 처음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진경이는 그런 장소에 갈 이쁜 옷이 없기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말을 듣고 바로 진경이를 데리고 나가 예쁜 드레스를 많이 사줬다.

진경이는 이날 조용히 나에게 "고마워. 이전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영화데이, 게임 데이 등을 가지며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에 웃음과 농담이 많아졌다. 그러나 갑자기 COVID-19가 강타했고, 진경과 진희가 함께 지내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해졌다. 따라서 법정은 진경 진희 자매에게 친부모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진경이와 진희가 떠난 후, 나는 이 자매들과 함께 한 지나간 시간을 많이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다소 슬프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좋은 추억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들이 떠난 후, 그들의 친부모가 우리집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저는 진경이와 진희를 다시 한번 잠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진희는 우리집에 오자마자 자기가 지냈던 방으로 재빨리 기어가기 시작했다. 진경이는 이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어느 날, 11살 아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저는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다. 소화불량으로 생각되던 것이 맹장염이었던 것이다. 아이는 오렌지카운티의 아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측은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1시간 이내에 친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저는 공황상태에 빠졌고, 재빨리 KFAM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혼란스러웠다.

친부와 여러 번 연락 끝에, 마침내 친부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왔다. 아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매우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수술이 끝난 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아이의 친부는 법적으로 아이와 단둘이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이 되어서야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집에는 또 돌봐야 할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온갖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지내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나와 함께 삼 남매는 매일같이 함께 개들을 산책시켰고, 때때로 놀이터에서 놀기 위해 머물기도 했다.

나는 산책할때 쉽게 피곤해지기도 해서 종종 앉아서 그들이 개들과 노는 것을 지켜보곤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보통의 가정에서 갖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은 우리 장남이 집을 방문하기 위해 돌아왔고, 온 가족이 함께 놀기 위해 세 남매를 디즈니랜드로 함께 데려갔다. 또한 한번은 법적인 이유로 첫째 아이가 학교의 현장 학습에 갈 수 없게 되자, 나는 KFAM 사회복지사에게 요청해 빠르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아이들을 반 친구들과 함께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남매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진짜 할아버지와 같이 되었다.

9개월 후 아이들이 친부와 재결합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그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보고, 그의 친부는 나에게 아이양육에 대한 대한 조언도 구했다. 나의 조언은 "일과를 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라. 그들이 규칙을 따르는 한, 그 규칙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잘 자랄 거야."라고

되돌아 보면 현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 아이: 데이빗

제 이름은 데이빗이고 19 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17살까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린나이에 이혼을 했고 또 이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게 되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린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절을 통해 많은걸 깨우치게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돌보게 되며 저는 16 살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는 저를 도와줄 형편이 될 어떤 친지도 없었습니다.

되돌아 보면 현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희망이 있을거란 생각에 태어난 곳 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야 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했습니다. 18 살 되던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저는 LA로 가는 항공티켓을 구했습니다. 제 고향이었기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홀홀단신으로 미국땅에 올 결심을 한다는것이 매우 무모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언어도 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미국 국적자이지만 중국에서 거의 지냈기때문에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공항에 입국했을 때 세관원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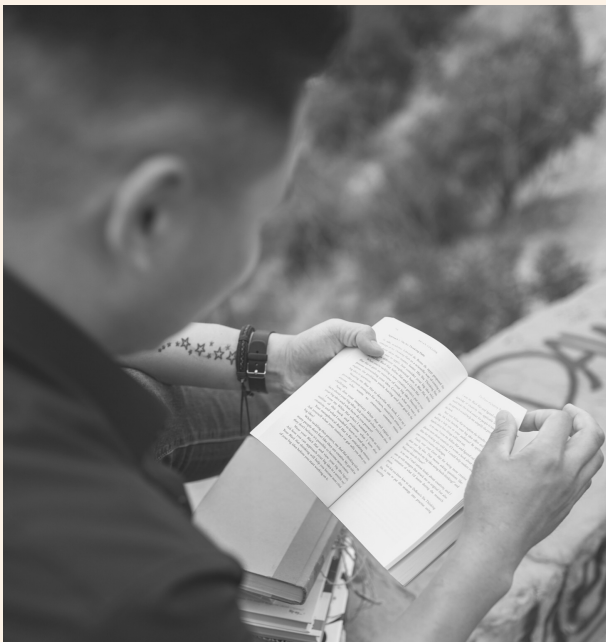


또한 저에게는 별다른 목적지가 없었기때문에 공항 밖에 있는 택시 기사에게 차이나 타운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어가 통할거란 생각이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 지 엄두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아동보호소로 옮겨진 뒤, 이후 법원을 통해 위탁 가정 시스템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탁 가정에 도착했을 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위탁가정 생활은 약간 겁이 난 상태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제 삶의 다양한 측면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1년을 마치고 모든 과목에서 A+를 획득하고 명예의 벽에 이름을 붙인 후, 검정 고시를 통과해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1 학기에 올 A 성적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은 정치학입니다. 앞으로 UCLA 나 UCSD로 편입해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편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OT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아이:수빈이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흐릿한 얼굴과 칠판에 적힌 희미한 글씨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력때문에 계속해서 숫자 9와 6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시험에서 항상 틀리곤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안경을 사달라고 말하자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막 혼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며 친구 얼굴도 흐릿해서 잘 알아볼 수가 없고 칠판의 글씨, 숫자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거듭 이야기 했지만 아빠는 믿으려하지 않았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저는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말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과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하는것을... 또한 아빠가 제 시험성적을 보면 또 혼낼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로 절대 집에 시험성적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흐릿한 시야와 멍든 몸을 지니고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8살 때, 비로소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빠가 의붓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거실 테이블로 밀치고 또 벽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만하라고 하는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제가 6살 되던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엄마가 나를 버렸고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비명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항상 염려했습니다.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된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아빠와 떨어져 새로운 위탁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사를 해야했고 전학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 부모를 만난 순간 저는 바로 어떠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위탁부모님은 저에게 앞으로 아무도 저를 해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탁부모님은 저를 이곳 저곳에 많이 데려가 주었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저녁 외식을 하러 나갔고, 저는 처음으로 파파이스 치킨샌드위치가 제 취향이라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위탁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 친지들과 다함께 웃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 위탁엄마는 저를 데리고 온세상이 밝은 빛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에겐 불빛이 흐릿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내 또래 어린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빠의 감독방문을 명령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팠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큰돈을 들여 화려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재판을 받았기때문입니다. 감독방문을 하는 동안 제 소셜워커는 저에게 혹시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으면 그녀손을 꼭 쥐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독방문때마다 3분도 채 안되서 저는 소셜워커의 손을 꼭 쥐었고, 그녀는 우리가 떠날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법원에 항의했고 판사는 제가 아버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감독방문시간동안 일찍 떠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빠의 감독방문 도중에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저를 학대했던 아빠와 한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 담당 소셜워커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소셜워커가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고 또 관찮을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매번 감독방문에 나가면서 끝없이 인내했습니다. 속으로는 겁에 질린 어린 아이였지만 저는 남자답게 아빠앞에 맞섰습니다.

제 위탁부모님은 저의 시시콜콜한 감정뿐만아니라, 아빠에게 받은 상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험성적을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위탁부모님이 알게 되었을때 그분들은 저를 얹히고 솔직하게 이야기기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분들께 낮은 목소리로 제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성적때문에 혼나고 싶지 않아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위탁엄마는 저에게 절대 그런일은 없을거라고 타일렸습니다. 다음날 위탁엄마와 함께 바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부모님의 보살핌으로 5개월을 잘 보낸 후, 저는 다시 제 친엄마와 만날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제 친엄마가 저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선명한 세상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마음을 여는 법 또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8살짜리 평범한 아이가 되는 법을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위탁 가정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한 세상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기진 주안이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줬어요:위탁부모 미진 엄마

흰 쌀밥과 고추장. 그것은 내가 주안이한테 저녁으로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한 대답이었다. 나는 무척 당황스럽고 의아했지만, 그건 주안이가 알고있는 유일한 메뉴였다. 주안이는 어린 아기였을때 친어머니는 그저 방임하며 키웠다. 그녀 또한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조차 돌볼 능력이 없었다. 주안이의 아버지 또한 주안이를 엄마에게 남겨두고 결혼 생활을 끝냈다.

불과 9살 때, 주안이는 배고픔에 음식을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지며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운이 좋은 날이면 주안이는 고추장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안이는 그저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주안이는 밥과 고추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 다

주안이는 밥과 고추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딱히 싫어하지도 않았다. 사실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했다. 이 식사가 주안이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였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우리집에 도착했을때 주안이는 우리집의 다양한 식사 메뉴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졌다. 이탈리아 피자부터 갈비까지 주안이는 모든것을 맛보고 싶어했고, 또 그 모든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먹길 원했다. 주안이는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장 본인 접시에 있는 음식을 다 먹기전에도 이후 또 내가 어떤 음식을 할건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안이가 성인 이상의 식사량을 먹기 시작하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셜워커와 상담중에 나는 주안이에게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주안이는 음식으로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닫게 된 나는 주안이가 어서 빨리 음식외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일단 화려한 종이에 금장을 한 식단표를 만들었다.

매주 주안이가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집밥 메뉴를 선보였다. 그리고 음식은 빨리 섭취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포함시켰다. 주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차돌박이 고추장 볶음이었다.

또한 방과 후, 주안이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계획했다. 주안이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뒷마당에서 남편과 함께 축구를 하거나,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놀았다. 가끔은 놀기 바빠서 저녁식사 시간을 까먹기도 했다.

겨울이 되었을때는 신체적 운동도 지속하기는 했지만, 심리적 운동도 변형했다. 주안이가 건축에 관심을 보이자, 우리는 레고 세트를 사주었다. 주안이는 화려한 직사각형 블록으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도 짓고 아담은 작은 집도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모든것을 레고로 완성시켰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안이는 그의 생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 주안이는 기쁘고 흥분되기도 했지만 우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에도 힘들어했다. 주안이는 우리를 보기위해 다시 찾아올거라 했고 작별 인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주안이는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갖추었다고...

내가 주안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을 해줄까 물었더니 주안이는 웃으면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무엇을 원한다고 물었더니 주안이는 웃으면서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했다. 주안이는 마침내 허기지지 않았던 것이다. 음식이 아닌 우리 부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우리 부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위탁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 친지들과 함께 윗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 위탁엄마는 저를 데리고 온세상이 밝은 빛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에겐 불빛이 흐릿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내 또래 어린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빠의 감독방문을 명령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팠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큰돈을 들여 화려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재판을 받았기때문입니다. 감독방문을 하는 동안 제 소셜워커는 저에게 혹시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으면 그녀손을 꼭 쥐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독방문때마다 3분도 채 안되서 저는 소셜워커의 손을 꼭 쥐었고, 그녀는 우리가 떠날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법원에 항의했고 판사는 제가 아버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감독방문시간동안 일찍 떠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빠의 감독방문 도중에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저를 학대했던 아빠와 한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 담당 소셜워커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소셜워커가 너무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고 또 관찮을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매번 감독방문에 나가면서 끝없이 인내했습니다. 속으로는 겁에 질린 어린 아이였지만 저는 남자답게 아빠앞에 맞섰습니다.

제 위탁부모님은 저의 시시콜콜한 감정뿐만아니라, 아빠에게 받은 상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험성적을 집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위탁부모님이 알게 되었을때 그분들은 저를 얹히고 솔직하게 이야기기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분들께 낮은 목소리로 제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성적때문에 혼나고 싶지 않아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위탁엄마는 저에게 절대 그런일은 없을거라고 타일렀습니다. 다음날 위탁엄마와 함께 바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부모님의 보살핌으로 5개월을 잘 보낸 후, 저는 다시 제 친엄마와 만날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제 친엄마가 저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미국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Donate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등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6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